

# 祝 辭

2022. 10. 12. (수) 10:00 / KRX 마켓스퀘어 1층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I.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의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센터의 출범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거래소 손병두 이사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센터에 훌륭한 인재들을 기꺼이 보내주신,  
한국공인회계사회 김영식 회장님과 회계기준원 김의형 원장님,  
삼일, 삼정, 안진, 한영 회계법인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민·관이 합심해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II. 중소기업 회계환경과 정책방향

---

전체 외부감사 대상기업('21년 기준 33,250개) 中  
자산 5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비율은 약 96%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우리 회계제도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배려가  
상당히 부족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게 대형 상장사와 비슷한 수준의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이 적용되어,  
현실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규제 전반을 되짚어본 후,  
과도한 회계부담은 덜어주기 위해  
지난주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10.6)한 바 있습니다.

❶ 자산 1천억 미만 소규모 상장사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을 완화하고,

❷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대형 비상장사 기준을 자산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❸ 자산 2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 기업에게는  
한층 간소화된 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향후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추가적인 개선 필요성이 없는지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Ⅲ. 마무리 말씀

---

이 곳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회계정책의 시발점입니다.

이 센터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재무제표 작성부터  
감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든든한 조력자이자,  
회계역량을 한 단계 끌어 올려주는 교육플랫폼으로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라도  
정작 수혜자가 잘 알지 못한다면 의미가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되도록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센터를 찾아와  
문전성시를 이룰 수 있도록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서  
홍보에도 앞장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도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